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26.(목) 12:00
(지 면) 2026. 11.27.(금) 조간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서비스 한자리에...
'제2회 AI 정부 실험실 이용자 포럼'

- 11월 26일(목) 일산 킨텍스서 개최, 현업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이용자 150여 명 참석
- 이용자 애로사항·개선의견 폭넓게 수렴해 '27년 정식 서비스 반영 및 확산
-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강연 및 서울 광진구 'Kordoc' 대상 등 우수 사례 5건 시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진흥원)은 11월 26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제2회 AI 정부 실험실 이용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정부 실험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직접 개발·검증·공유하도록 마련한 개발 환경으로, 지난 7월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8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현업 공무원으로 이용 대상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 확대에 발맞춰 열린 이번 포럼은 이용자 간 소통과 협업을 넓히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AI 정부 실험실'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이용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정부 실험실' 구축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 우수 사례 시상,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는 'AI 정부 실험실' 운영 현황과 2027년 계획을 공유하고,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가 'AI 에이전트 시대, 공공부문 업무 혁신의 미래'

를 주제로 초청 강연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실험실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향후 'AI 정부 실험실'의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실험실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거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우수 사례 5건을 시상했다. 우수 사례는 공공 산출물 저장소(GitLab)에 공개된 프로젝트 가운데 추천 수 등을 기준으로 후보를 추린 뒤 실험실 이용자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대상·최우수상·우수상 3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장려상 2건에는 진흥원 원장상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대상은 서울 광진구의 'Kordoc'이 선정됐으며, 한글(HWP)·PDF 문서의 AI 변환 및 한글 보고서 작성 기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공문서 서식과 내용을 저장해 비슷한 내용의 문서 기안을 도와주는 '한글문서 재기안 에이전트 스킬셋', 온나라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온나라 전부서 문서 통합검색 사이드바'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행정안전부와 진흥원은 포럼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2027년 정식 서비스에 반영하는 한편, 수상 사례가 다른 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와 확산을 이어갈 예정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공무원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공공 인공지능 전환은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이용자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험실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승원 (044-205-2702)
		담당자	사무관	김경민 (044-205-22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